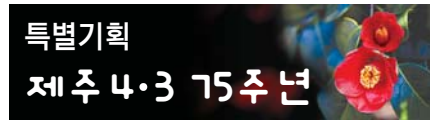


속도 못 내는 일반재판 수형인 명예회복

제주4·3특별법 개정 후 861명 국가 차원 재심 청구 일반재판 재심합수단 일원화했지만 인력 9명 불과 희생자 결정 의존하는 재심 결정 방식 보완 요구도



<4> 4·3희생자 직권재심

지난 2019년 1월 17일 제주4·3 당시 군사재판을 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수형인 18명이 재심을 통해 사실상 무죄에 해당하는 공소 기각 판결을 받았다. 부당한 공권력으로 얼룩진 4·3 군사재판의 불법성을 인정한 첫 사법적 판단이자, 피해자 명예회복을 이끌어 낸 첫 판결이었다.

그로부터 1년 11개월이 지난 2020년 12월 7일 4·3 당시 폭도로 몰려 일반재판을 받고 옥살이를 한 수형인에게 재심 재판부가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명예회복을 위한 재심 과정은 지난했다. 백발이 성성한 피해자들이 법원을 수시로 오가며 1년 넘게 결백을 주장해야 했다. 2021년 개정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특별법)은 이처럼 국가 잘못을 바로 잡는 일을 피해자에게 떠넘기지 말고, 국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문제 의식에서 출발했다.

▶ 직권·특별 재심 길 연 4·3특별법=개정된 4·3특별법의 핵심 중 하나는 특별·직권 재심 조항이 신설된 것이다. 특별재심 조항은 4·3 희생자로 결정된 피해자들이 형사소송법 등에 따르지 않더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특별한 권한을 부여한 것이고, 직권재심 조항은 군사재판 수형인명부에 기재된 희생자에 대한 재심 청구를 국가가 직권으로 하도록 권고한 것이다.

특히 직권재심은 그동안 피해자가 개별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재심 재판을 요구하고, 무죄를 주장하던 일을 국가가 맡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이 일을 전담하기 위해 2021년 11월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이하 합수단)이 출범했다. 출범 후 합수단은 지금까지 군사재판 수형인 2530명 중 851명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해 671명이 무죄 선고를 받았다. 나머지 1679명 가운데 456명은 합수단이 아닌 피해자 측이 개별적으로 재심을 청구한 사례로 이중 439명이 누명을 벗었다. 따라서 아직 재

심 청구조차 안돼 명예회복 절차를 밟아야 할 군사재판 수형인은 1200여명이다.

직권 재심 대상은 지난해 8월 일반재판 수형인 희생자까지로 확대됐다. 똑같은 희생자인데 직권 재심 대상에서 소외돼 부당하다는 지역사회 요구를 법무부가 수용할 계획이다.

4·3 당시 일반재판을 받은 수형인은 1600여명에서 1800여명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국가 차원의 명예회복은 더딘 편이다. 지난해 12월 제주지검이 일반재판 수형인 10명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하며 이제야 첫발을 뒀고 국가가 아닌 유족에 의한 개별 청구도 80명 수준에 그쳤다. 검찰은 일반재판 직권 재심에 속도를 내기 위해 올해 2월 해당 업무를 합수단으로 일원화했다.

▶ 명시적 입법 등 과제도=군사재판 수형인의 경우 1999년 발견된 수형인 명부를 기초로 재심 대상을 추려내는 게 가능했지만 일반재판은 이런 명부가 없어 일일이 한자로 된 판결문을 전부 확보해 번역하고, 또 이들이 희생자 결정을 받았는지를 파악하는 등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올해 2월부터 합수단이 일반재판 희생자 직권 재심 업무까지 수행하게 됐지만, 인력은 검사 3명을 포함해 9명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지만 지난 24일 제주를 찾은 이원석 검찰총장은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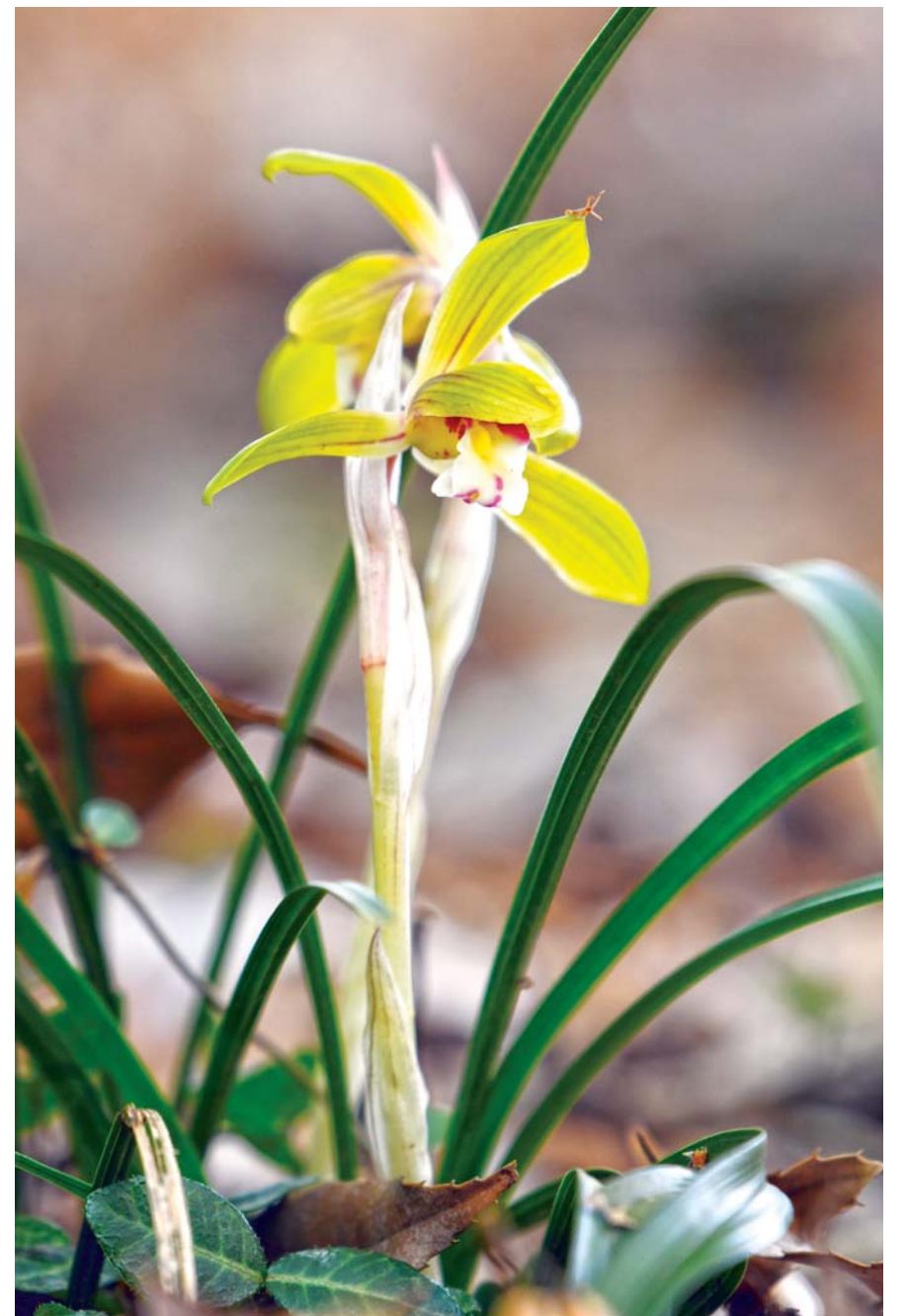
4·3특별법 보완도 필요하다. 직권 재심 대상이 일반재판 희생자로 확대됐지만 이는 법무부 자체 판단에 따른 것이어서 장관이 바뀌는 등 외부 변수로 인해 방침이 변경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지난해 8월 직권 재심 대상을 확대한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에 묶여있다.

재심 대상을 희생자 결정을 받은 이들로 한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있다.

양동운 4·3도민연대 대표는 “일반재판 희생자는 판결문이 남아 있기 때문에 당시 수사·재판 과정에 불법이 없는지 등을 충분히 조사할 수 있다”며 “그런데 지금 재심 대상을 추려내는 방식은 희생자 결정을 받았느냐, 군사재판 수형인이나 아니냐, 이 지점에 함몰돼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양 대표는 이어 “워낙 오래된 일이다보니 자신이 4·3 피해자인줄도 몰라 아직까지도 신고를 안한 경우가 많다”며 “신고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국가가 나서서 4·3당시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불법 재판 여부를 전수조사해 재심 대상을 국가 스스로 발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만기자 hasm@ihalla.com



고운 자태 뽐내는 춘란 29일 제주시 조천읍 선율리 중산간지역에서 춘란이 따스한 봄햇살을 받으며 꽃망울을 터뜨려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다. 강희만기자

찾아가는 4·3트라우마 치유사업 확대, 주 1회 시범운영→4월부터 주 5회 상시 운영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9월부터 주 1회 시범 운영 중인 ‘찾아가는 4·3트라우마 치유사업’을 내달부터 주 5회로 대폭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찾아가는 4·3트라우마 치유사업은 서귀포시 및 읍면 등 원거리 지역의 장거리 이동에 따른 교통 불편과 고령 유족들의 트라우마 치유 시급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제주도는 올해 사업비로 3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해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서귀포시 읍면동, 제주시 읍면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음악·미술 등 집단 치유 프로그램 및 심리상담실(개별 상담) 운영과

함께 지역별 보건소 및 보건지소와 협업을 통해 신체 치유프로그램도 동시 운영 중이다.

지난해 운영된 ‘찾아가는 4·3트라우마 치유 시범사업’에는 총 15회에 걸쳐 600여명이 참여했으며, 만족도 조사 결과 ‘만족한다’가 97.3%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찾아가는 치유사업 상시 운영을 통해 고령 유족들의 심리·신체적 아픔을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을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다양한 사업 발굴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다혜기자

살아남은 이들 70여년 옥죄 4·3 연좌제

내일 평화기념관서 본풀이마당... 유족 5명 증언

제주4·3연구소는 31일 제주4·3평화기념관 1층 대강당에서 ‘4·3, 재심과 연좌제-장창한 꿈마저 빼앗겨서다’를 주제로 스물두 번째 증언본풀이 마당을 개최한다.

이날 증언본풀이 마당에서는 연좌제 피해와 재심 무죄 판결을 받은 유족 5인이 나서 아픔과 고통으로 지내 온 수십여년의 이야기를 풀어놓을 예정이다.

4·3으로 인한 연좌제는 살아남은 유족들에게 또 한 번의 길고 긴 트라우마와 미래마저 앗아간 사슬이었고 가족들뿐만 아니라 먼 친족까지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이번 본풀이 마당에서는 연좌제로 꿈을 접고 삶의 방향을 바꾼 1947년생 양성홍씨가 아버지의 재심을 통해 명예회복을 이룬 이야기를 할 예정이다.

또 1949년생 강상욱씨는 관공서를 피해 다니며 경찰만 보이면 돌아서 가야 했던 아버지의 삶을 토로한다.

1937년생 오희숙씨와 오계숙·오기숙 세 자매는 아버지로 인해 사위의 앞날까지 연좌제 피해를 당해야 했던 기억을 꺼낸다.

생생한 증언을 통해 4·3의 고통과 진실을 전하고 있는 증언본풀이 마당은 4·3을 체험하지 않은 세대들에게 4·3이 과거가 아닌 현재 진행형의 역사를 말하고 유족들에게는 치유의 마당으로 지난 2002년부터 해마다 열리고 있다. 김도영기자

4·3희생자 추념일 오전 10시 도 전역 묵념 사이렌 울린다

제주도는 오는 4월 3일 제75주년 4·3희생자 추념식에 맞춰 오전 10시부터 1분간 제주 전역에 묵념 사이렌을 울린다고 29일 밝혔다. 사이렌은 도내 민방위경보시설 61개소에서 동시에 울린다.

제주도는 “4·3영령들을 추모하는 4·3희생자 추념일을 맞아 사이렌이 울리면 도민 모두가 경건한 마음으로 추모 묵념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강다혜기자

SINCE 1989
한라일보 34주년

시대의 물음에 기술로 답하겠습니다

한결같이 고객 여러분께 큰 만족과 믿음을 주고
믿음을 넘어 기분 좋은 행복을 전하는 사람들!

끊임없는 도전과 창의적인 사고로
무한한 감동을 이끌어내는 기업!

저희 풍기건설은 임직원 모두는
제주도민 곁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주의 대표 신문!
한라일보 창간 34주년을 축하합니다.

풍기건설(주)

대표 강미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수로5길 28(일도이동)
Tel. 064) 722-5195 Fax. 064) 722-5192